

# 2007 정기지방회

총회임원 후보추천

경남, 류종길 목사(김해제일교회) 부총회장 후보로 추천 / 서울중앙, 한상표 장로(성락교회) 부총회장 후보로 추천  
서울강서, 문정섭 목사(소망교회) 서기 후보로 추천 / 대전중앙, 이진구 장로(서대전교회) 회계 후보로 추천



서울중앙지방회 임원



서울강서지방회 임원



경기중앙지방회 임원



경기서지방회 임원



충청중앙지방회 임원



대전중앙지방회 임원



충남지방회 임원

**서울중앙지방회**는 지난 62회 정기 지방회를 중앙교회에서 열린 신임 지방회장에 진종성 목사(이문동교회)를 선임했다. 이날 지방회는 개회예배 후 대의원 228명 중 167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 초반 대의원 자격심사 과정에서 지방회 심판 후 총회 심판위에 계류 중인 경우 대의원 자격이 있는지 논란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심리부 재논의를 통해 대의원 자격이 있음을 확인한 후 회무를 진행되었다.

각 부 보고 중 심판위 보고에서 장시간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이어진 임원선거에서는 경선으로 치러진 부서기, 부회계 후보를 제외하고 다른 임원은 단독출마로 당선 확정됐다. 부서기에는 한상표 목사(한민교회)와 김곤 목사(창성교회), 부회계에는 최병용 장로(대은교회)와 강흥원 장로(명광교회)가 출마해 투표가 진행되었으며 목사(대선)와 강흥원 장로가 각각 93표와 106표를 얻어 당선됐다.

이어진 회의에서 지방회는 목사안수 청원 8건, 전도사 시취청원 21건, 원로장로 추대와 명예장로 추대 등을 허락하였으며 교회확장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등의 문제를 협의해 처리했다.

이날 지방회는 한상표 장로(성락교회)를 총회 부총회장 후보로 추천하기로 하였으며 교단100주년 사업에 지방회 차원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다음은 임원명단.  
지방회장/진종성 목사(이문동), 부회장/전원석 목사(동부) 심탁일 장로(세광), 서기/김성찬 목사(양지), 부서기/김곤 목사(창성), 회계/김장권 장로(목동), 부회계/강흥원 장로(명광).

**서울강서지방회**는 지난 2월 22일 대은교회에서 제61회 정기지방회를 갖고 새 지방회장에 이병술 목사(시온교회)를 선임하는 등 주요 회무를 처리했다.

대의원 184명 중 14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서울강서지방회는 헌법 89조에 의거한 부서신설 조항으로 교육위원회를 총회 항존부서로 승인해 줄 것을 청원하기로 했으며, 지방회 전도부 주관으로 3~4월 중 100주년 중앙대회를 위한 감찰회별 철야기도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서울강서지방회는 그동안 합동예배를 드리고 있던 서울중앙교회와 참사랑교회 통합을 허락하고 교회명을 예수비전교회로 하는 청원을 승인했다. 또 구 참사랑교회의 임대료는 지방회 내 교회개혁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임원선거에서는 부서기를 제외한 모든 입후보자가 단독으로 출마해 투표 없이 당선에 공포되었으나, 부서기는 김성현 목사(신성교회), 정수철 목사(광일교회), 김동운 목사(화곡중앙교회)가 경합을 벌인 결과 김성현 목사가 부서기에 당선되었다.

또한 서울강서지방회는 총회 서기 후보로 문정섭 목사(소망교회)를 추천하기로 결의했다.

다음은 임원명단.  
지방회장/이병술 목사(시온), 부회장/류재민 목사(성신) 최형진 장로(평안), 서기/김장길 목사(은혜), 부서기/김성현 목사(신성), 회계/황의철 장로(강서), 부회계/홍재오 장로(서울대신).

**경기중앙지방회**는 지난 2월 23일 기산교회에서 제64회 정기지방회를 개최하고 신임회장에 장세욱 목사(기산교회)를 선임하는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지방회는 대의원 94명 중 68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회분할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해, 분할불가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 따라 지방회는 이미 헌법연구위원회에 질의한 '해 지방회에서 분할상정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총회임원회와 선교부에서 임의로 지방회 분할을 상정할 수 있는가?', '10개 당회와 30개의 지방회 구성요건을 갖지 않았음에도 지방회 분할이 가능한가?', '지방회 정규교육을 받지 않은 장로로 당회구성이 가능한가?'에 대한 해석 결과



서울강서지방회

경 장로(하저), 부회계/김연후 장로(신천).

**경기서지방회**는 지난 2월 26일 세계로교회에서 제64회 정기지방회를 개최하고 신임회장에 나중구 목사(안양남부교회)를 선임하는 등 각종 회무를 처리했다.

이날 회의는 대의원 74명 중 5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지난해 개척된 지방회 100주년기념 교회의 처리문제로 공방이 이어졌으나 새로운 처리목사를 파송해 새롭게 시작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지방회는 총회의 헌법개정안에 대해 사전 연구를 통해 개정조항 헌법 제25조 2항 등 9개 항

**충청중앙지방회**는 지난 2월 22일 예산교회에서 제57회 정기 지방회를 갖고 신임 지방회장에 서부성 목사(별리교회)를 선임하는 등 회무를 진행했다.

대의원 117명 중 101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는 모든 임원이 단독 입후보한 가운데 무투표로 당선이 공포되었으며 목사안수 3건, 전도사승인 2건, 시무장로 1건, 원로장로 추대 1건 등을 처리했다.

또한 용연교회의 총만교회로 명칭 변경과 합덕교회의 합덕별교회로 명칭 변경을 승인하였으며 아산감찰을 아산동과 아산서감찰로 분할했다.

특히 이날 지방회는 재정적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방회 대의원 선납금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임원회의 논의를 거쳐 상정된 이번 안건은 지방회 재정의 효율성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으며 지방회는 대의원 선납금은 30만원으로 확정했다.

이날 지방회에서는 갈보리 교회의 가입과 호서교회 지교회 설립승인 등은 서류미비로 반려하기로 했다.

다음은 임원명단.  
지방회장/서부성 목사(별리), 부회장/유성재 목사(매곡) 이필은 장로(옥금), 서기/남봉룡 목사(상궁), 부서기/김태봉 목사(대산), 회계/류창수 장로(신례원), 부회계/현종문 장로(예산).

**대전중앙지방회**는 지난 2월 22일 대전중앙교회에서 제63회 정기지방회를 갖고 새 지방회장에 이병기 목사(문화교회)를 선임하는 등 회무를 처리했다.

대의원 80명 중에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대전중앙지방회는 지방회 내 미자립교회 지원 등을 위해 2008년부터 지방회비를 0.5% 인상하기로 했다. 대전지방회는 지난해 교역자교육을 위해 지방회비를 0.2% 인상한 바 있지만, 지방회 발전을 위해 다시 한번 지방회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같이하고 기존 0.2% 인상분에 또 다시 0.5%를 추가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헌법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이 있었다. 일부 대의원들이 임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의원들이 개정안 내용을 모르는 가운데 제안한 개정안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어렵다고 지적해 있어 헌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으로 회무가 다소 지연되었다. 헌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대의원들은 11인의 소위원회를 구성하며, 임원들을 제외한 목사 6인, 장로 5인으로 구성해 심도 깊게 연구하기로 하고, 이후 임원회에서 제안한 개정내용을 함께 수렴해 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임원선거에서는 모든 임원들이 단독 출마해 투표없이 당선이 공포되었으며, 총회 회계 후보로 이진구 장로(서대전교회)를 추천하기로 했다.

한편, 대전중앙지방회는 지방회를 앞두고 임원단과 지방회 100주년위원회가 논의한 100주년 중앙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실천방안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대전중앙지방회는 100주년 중앙대회 참석을 위해서는 각 감찰별로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성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으며, 중앙대회에 대한 평신도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5월

## 서울강서, 중앙대회 위해 철야기도회 추진 경기서, 헌법개정안 9개 항목 의견 제시 대전중앙, 미자립교회 위해 지방회비 0.5%인상 경기중앙, 지방회 분할 관련 논란

를 주목하기로 했다. 또한 100주년 중앙대회를 앞두고 지방회차원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으며 헌법개정안은 소위원회로 구성, 충분한 토의를 거쳐 총회에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내선교위원회 명칭사용은 헌선의 우려가 있어 당분간 기존의 교회확장위원회와 병행해서 사용하기로 했으며 늘푸른교회(이연우 목사)의 전입 승인과 위상교회의 평화제일교회로의 교회명칭 변경건은 허락했다.

다음은 임원명단.  
지방회장/장세욱 목사(기산), 부회장/고영곤 목사(의왕) 이영환 장로(오산평화), 서기/조화운 목사(신광음), 부서기/정규택 목사(꿈의), 회계/김성

목에 대한 의견을 정리 안으로 제시했으나 시간관계상 대의원들과 논의하지 못하고 헌법연구위원회와 신임원들에 일임해 해당 안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모 교회의 지방회와 감찰회를 통한 교육과정을 거치지 않고 임직식을 거행한 것은 불법임을 확인했으며 교단에서 승인받지 않았으나 개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는 여전도사를 합동전도사로 지방회 주소록에 등재하기로 했다.

다음은 임원명단.  
지방회장/나중구 목사(안양남부), 부회장/한홍식 목사(이레) 최명권 장로(안양중앙), 서기/송창원 목사(안산영광), 부서기/전상일 목사(행복한), 회계/이재일 장로(세한) 박광호 장로(소망세광).

## 2007학년도 1학기 수강생 모집

http://sce.stu.ac.kr

### 학점은행제(학사학위) 취득과정

- ◆ 개설과목 - 신학전공 : 25과목, 교회음악전공 : 12과목, 아동학·심리학전공 : 각 1과목, 교양 : 3과목
- ◆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 소지자 (수능시험 무관)
- ◆ 구비서류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②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③ 주민등록등본 1통 ④ 사진 2매(반명함판) ⑤ 목회경력증명서 1통 (목회자반만 해당)
- ◆ 특 징 - 80학점 이상 취득 시 대학교 편입 지원 가능 ▶ 본 대학교 대학원 진학시 교단목사안수 가능 (전도사승인은 M.Div. 졸업 후 가능) ▶ 학위취득요건(140학점)을 갖춘 자 중 84학점 이상을 본 교육원에서 취득 시 서울신학대학교 총장 명의의 학사 학위 수여
- ◆ 학점은행제 특별과정 목회자반 ▶ 학위 취득후 대학원을 희망하는 모든 목회자들이 지원 가능한 과정
- ◆ 학점은행제 계절학기(여름학기) : 8주 과정 (기간 : 2007.6.25~8.17) <신학전공> 구약신학, 근대교회역사, 목회신학, 선교신학, 조직신학원론, 철학적신학, 한국교회사 <심리학전공> 심리학개론 <교회음악전공> 전공실기 I, II, III, IV, V, VI, VII, VIII
- ◆ 원서 교부 및 추가접수  
• 기 간 : 2006. 3. 5(월)~3. 9(금) 09:30~17:00  
• 문의처 : 평생교육원 교학과  
전화: 032)3409-236/7 팩스: 032)349-0369

### 평생교육원 일반과정

- ◆ 상담지도자과정 (1년 과정)  
상담기초, 상담고급, 목회자사모상담
- ◆ 음악연수과정 (1년 과정)  
성악(I,II,III), 피아노실기지도, 이문송작곡실, 합창지휘(I,II,III), 찬송가번주법(초급)
- ◆ 자격증과정 (① 한 학기 과정 / ② 1년 과정)  
① 스포츠마사지(2급), 풍선아트(2급)  
② 동화구연지도사, 아동미술실기지도사, 어린이영어지도사, 화해장식기능사대비반, 방과후아동지도사, 독서지도사, 한국어교원3급자격대비반(국가공인)
- ◆ 지역사회(주민)프로그램 (한 학기 과정)  
컴퓨터강좌(초급), 컴퓨터강좌(중급), 영어회화(초급), 영어회화(중급)
- ◆ 교양과정 (1년과정) : 부케·선물포장, 성전 꽃꽂이
- ◆ 평신도지도자 위탁교육 프로그램 (2년과정)  
구약개론, 디아코니아선교
- ◆ 지원자격 - 학력(자격증 과정은 별도), 연령, 성별, 종교 제한 없음. (지역사회 프로그램은 경기, 인천지역 일반성인만 지원 가능)
- ◆ 수업기간 - 15주 (주1회 강의, 미술실기지도사는 주2회 강의)
- ◆ 특 전 - 소정의 교육과정 이수 시 총장명의의 수료증 수여

◆ 수강안내  
수업기간 : 2006. 3. 5(월)~6. 15(토) (15주 수업)  
교통안내 : 경인전철 소사(서울신대역) 하차, 도보로 약 10분 거리  
주 소 : 422-742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2동 10

교육이념 : 진리와 성결 ■ 교육목적 : 성결인·전문인·창조인·봉사인  
**서울신학대학교 평생교육원**  
(The School of Continuing Education,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 제 6 회 전국 목회자 세미나

주 제 : 교단 100주년, 교회 부흥 어떻게 할 것인가?

- 일 시 : 2007. 3. 12(월) 10:00~13(화) 17:00
- 장 소 : 수안보 파크호텔
- 참가대상 : 교단내 목회자 200명 (선착순)
- 참 가 비 : 50,000원(숙·식, 교재비 포함)
- 강 사 :  
• 주제강좌 김인중 목사(동산교회) 안희복 목사(꿈의교회)  
• 특별집회 유재명 목사(빛나교회)  
• 특별강좌 조광성 목사(송현교회)  
• 역사연구 박명수 교수  
• 성경연구 권혁승 교수  
• 목회연구 김한옥 교수
- 참가신청방법 : 참가비 납부 선착순 200명  
• 등록기간 : 2월 22일~28일  
• 계좌번호 : 국민은행 238501-04-011790 (예금주:서울신대 목회자세미나)  
• 세미나 안내 : 홈페이지 참조(www.stu.ac.kr)  
• 이메일 신청: kimsh@stu.ac.kr  
• 팩스 신청: 032)349-9634  
※13일(화) 숙박을 원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꼭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김성희 계장 (기획처, 032-340-9109)

## 교단창립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서울신학대학교

주 관 : 서울신대 신학전문대학원 후 원 : 성봉선교회, 수안보파크호텔, 한국도자기, 세인트 제임스, 로제화장품

# 헌법 개정·미자립교회 지원 논의 활발

전에 감찰별 성결인 대회를 열어 분위기를 조성키로 했다. 또한 감찰별로 교단 100주년을 감사하고, 성공적인 대회개회를 위해 3회 이상씩 기도회를 열고, 개교회별로 공예배 시간에 100주년을 위한 기도시간을 갖기로 했다.

다음은 임원명단.  
지방회장/이병기 목사(문화), 부회장/허성도 목사(대전) 이영준 장로(성산), 서기/주형구 목사(대전), 부서기/김용민 목사(애선양무리), 회계/송기훈 장로(대전중앙), 부회계/이완희 장로(정밀).

**충남지방회**는 지난 2월 15일 논산제일교회에서 제63회 정기 지방회를 열고 신임회장에 최광섭 목사(남산교회)를 선임하는 등 회무를 진행했다.

대의원 총 124명 중 110명 출석한 가운데 열린 충남지방회는 국내선교회의 작은교회 지원정책 시행이 미뤄졌지만 지방회 차원에서는 중점처럼 미자립교회 지원을 계속 진행키로 결정했다. 충남지방회는 수년전부터 지방회내 미자립교회에서 한 교회 이상씩 작은교회와 결연, 재정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다.

또한 대의원들은 매년 개최해오던 지방회 연합 집회를 '성결인대회'가 아니라 전도부와 평신도부가 주최하는 '100주년기념성회'로 개최키로 했다. 평신도들이 중심이 되는 행사를 통해 100주년 중앙대회에 평신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충남지방회는 또 총회 법제부에서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 대해 지방회 임원단과 감찰장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상정키로 했다.

임원선거에서는 목사 부회장을 제외한 후보들은 단독 후보로 무투표 당선인 공포되었으며, 목사 부회장에 입후보한 박병정 목사(목산교회)와 황진구 목사(연무교회)는 경선에 들어가 1차 투표결과 총 투표자 105명 가운데 박 목사가 77표를 획득해 부회장에 당선됐다.

다음은 임원 명단.  
지방회장/최광섭 목사(남산), 부회장/박병정 목사(목산) 송완의 장로(은산제일), 서기/임병철 목사(금강), 부서기/이상수 목사(연산성심), 회계/강선구 장로(부여남부), 부회계/이성훈 장로(논산).

**경남지방회**는 지난 2월 23일 시온중앙교회에서 제64회 정기지방회를 개최하고 신임회장에 최영길 목사(시온중앙교회)를 선임하는 등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했다.

이날 지방회는 제101년차 총회 목사부총회장 후보로 류종길 목사(김해제일교회)를 추천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이날 대의원들은 지난해 지방회 차원에서 진행한 목사안수식을 올해는 영남 8개지역 합동 목사안수식을 추진키로 하고 안수위원 결정 등 세부현안은 임원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또한 이미 한차례 지원한 바 있는 무학산기도원의 건축에 각 교회가 적극협력하고 세례교인 1인당 1만원이상을 헌금하기로 하는 등 지방회 차원

의 후원 안을 결의했다.  
이밖에 지방회 내 미자립교회를 지원을 위해 책정된 1% 특별선교비를 지속적으로 하고 피지원교회가 늘어가는 것을 감안해 유동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개척된 지 3년이하의 5개 교회는 지방회비를 받지 않기로 해 해당교회의 재정부담을 덜어주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다음은 임원명단.  
지방회장/최영길 목사(시온중앙), 부회장/고희석 목사(아름다운) 이진이 장로(창원), 서기/고성래 목사(밀양), 부서기/고성찬 목사(김해대성), 회계/차해웅 장로(활천), 부회계/박수철 장로(봉황).

서 청원한 권사 3명, 안수집사 1명이 전원 통과됐다.

이밖에 각 감찰별로 미자립교회를 돕기로 한 사업이 미온적이라는 것에 의견을 같이하고 금년회기부터 임원회와 감찰장에게 일임하여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가결했으며 부산, 울산 목회자협의회를 구성해 독서세미나 등 각종 세미나를 유치키로 했다.

또한 지방회 개회를 위해 각 교회가 제출해야 할 대의원명부, 교세계통계표, 사무총회록 등 행정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할 것을 결의했다.

다음은 임원명단.  
지방회장/김용운 목사(목동중앙) 부회장/류우송 목사(울산중앙) 차형기 장로(광명), 서기/박정



경남지방회

## 충서중앙, 지방회 대의원 선납금 제도 시행 충남, 평신도 중심 100주년기념성회 개최키로 경남, 개척 3년 이하 교회 지방회비 받지 않기로 울산, 감찰별 미자립교회 지원사업 주력키로

**울산지방회**는 지난 2월 22일에 목동중앙교회에서 제36회 지방회를 개최하고 신임 지방회장에 김용운 목사(목동중앙교회)를 선임하고 세부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지방회에서는 서울산교회 목사 면직 해별 청원의 건은 기각되었으며 서울산교회의 처리권은 서울산교회가 지방회를 탈퇴해 총회에서 처리 목사를 파송키로 한 것으로 알려져 서울산교회의 이름을 지방회에서 삭제키로 했다.

또한 제일교회에서 청원한 목사안수 건을 비롯해 성광교회에서 청원한 장로시취 3명, 권사 10명, 안수집사 11명, 강남중앙교회에서 청원한 장로 1명, 권사 3명, 안수집사 1명, 평산등대교회에

철 목사(남울산), 부서기/송경석 목사(서원), 회계/김광용 장로(울산한샘), 부회계/박종만 장로(울산중앙).



경남지방회 임원



울산지방회 임원

### 지방회 결산

## 100주년 중앙대회 적극 동참

### 대회조직위 가동·예산과 수송 대책 세워 미자립교회 지원 정책·전도운동 방안도 모색

2007년 정기 지방회가 지난 2월 27일 서울중앙지방회를 끝으로 모두 폐회했다. 교단 창립 100주년의 해에 열린 이번 지방회에서는 100주년기념 중앙대회 참여와 기념교회 개척 등 100주년 사업과 관련된 결의가 풍성했으며, 헌법전면개정, 미자립교회 지원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다.

먼저, 100주년 중앙대회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으며 대회 인원 동원과 수송을 위한 조지위원회를 가동하고 예산을 세우는 지방회가 적지 않았다. 지방회의 포문을 연 인천남지방회를 비롯해 서울서, 서울강서, 서울중앙, 경기중앙, 대전중앙, 충남, 인천중앙, 경기동, 강원동, 충서, 충청 전북, 부산서, 등이 100주년 중앙대회의 적극적 참여를 결의했으며, 이를 위해 인원동원을 위한 대회조직위원회를 조직하고 성공적인 대회를 위한 성회개회를 계획 중인 지방회도 있다. 서울서지방회와 강원동지방회는 지방회 차원에서 중앙대회 참석을 위한 예산안도 편성했다. 부산서지방회도 각 교회별로 헌신예배를 드려 예배헌금 모두를 중앙대회 참석 성도들의 경비에 충당키로 했다. 이밖에 영남과 호남 충청지역의 지방회는 수송 문제 등 참석을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했다. 이와 함께 100년을 기념해 인천동지방회와 부천지방회, 인천중앙지방회, 제주지방회, 강원동지방회, 강원서지방회 경기남지방회 등이 100주년 기념교회 개척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으며, 서울서지방회와 인천동지방회, 인천남지방회, 대전중앙지방회, 충남지방회, 전남지방회 등이 100주년 기념 전도집회 등 전도운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한 미자립교회 등 어려운교회의 지원 방안과 정책에 대한 의견도 풍성하게 나왔다. 제주지방회는 성결인대회와 연합대상회에서 나온 헌금을 모아 미자립교회에 지원키로 했으며, 충북지방회는 교회개척자금 특별회계 운영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청주지방회는 미자립교회에 지원한 교회육성 대여금을 탕감해주기로 하는 등 신선한 작은 교회지원 정책을 마련했다. 경남지방회는 개척된 지 3년 이하의 교회의 지방회비를 받지 않기로 했으며 대전중앙지방회는 어려운 교회를 돕기 위해 경성비를 0.5%를 인상키로 했다. 대구지방회는 목회자 자녀를 돕기 위한 장학부서를 두기로 했으며, 경북서지방회는 목회자 안 정밀검사를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 경기남, 충서지방회, 대전동지방회와 광주지방회, 부산동지방회 미자립교회 및 목회자 후원 대책을 세웠다. 서울서와 인천중앙 경기지방 대전서지방 등은 국내선교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작은 교회 지원 정책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지방회에서는 헌법전면개정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많은 지방회에서 헌법전면개정을 위한 자체 연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자체 공청회와 연구를 통해 헌법개정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리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대의원 선거에서 혼선이 빚어지는 지방회도 있었으며, 선거권을 갖지 못한 안수 10년 이하의 젊은 목회자들의 반발도 있었다.

또한 이번 지방회에서는 백장홍 목사(한우리교회)가 총회장 후보로 추천되는 등 총회 임원 추천도 이어졌다. 특히 부총회장 후보들이 다수 추천받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목사 부총회장에는 경기동지방회에서 박봉상 목사(시온성교회) 전주지방회에서 전병일 목사(정음교회), 경남지방에서 류종길 목사(김해제일교회)가 추천을 받고 출사표를 던졌다. 또한 장로부총회장 후보에도 한상표 장로(서울중앙·성락교회)와 홍진우 장로(서울남·신덕교회), 박우철 장로(대구·봉산교회)가 각각 추천을 받았다. 이밖에 총회 서기에 문정섭 목사(서울강서·소망교회), 부서기에 구금섭 목사(부천·큰나무교회), 회계에 이진구 장로(대전중앙·사대전교회)가 추천을 받았다. 부회계에는 작년에 이어 조병철 장로(서울북·성북제일)와 우정주 장로(부산서·부산진교회)가 후보로 추천을 받고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밖에 이번 지방회에서는 정보통신부의 신설과 지방회 홈페이지 개설 등에 대한 사업도 결정되기도 했으며, 청년회와 중고등부 활성화, 대의원 선출제도 변경 등에 대한 건의안도 나왔다. 또 새찬송가를 사용 결의와 교육위원회를 총회 향존부서로 승인해 줄 것을 청원한 지방회도 있다.

황승영

### 정정

지난호 지방회 임원 명단중 인천서 지방회 지방회장을 '공기호 목사'(가좌교회)로, 경북지방회 부회계 운영락 장로의 교회를 '수하교회'로 바로 잡습니다.

구입문의 전국 대형 서점 및 기독교서점

## 한국교회의 새로운 찬송가

# 2007년 부활절부터 전국 교회에서 공식 사용기로 결의

부활절 이전 구매 찬스 서두르십시오!

전국 24개 교단이 소속해 있는 교단장협의회에서는 금년 1월부터 교단의 모든 공식 예배와 행사에서 새로운 찬송가를 사용하기로 하고, 금년 부활절부터는 전국 교회가 모두 새로운 찬송가를 사용하도록 결의하였습니다.

부활절 당일까지 구매 신청을 하신 경우에는 특별보급가에 드립니다.



사진해설



73H



73TH

● 사진해설 성경찬송 합부 19,000원 (검정, 다크브라운)

● 보급판 성경찬송 합부 73H : 15,000원 / 73TH : 19,000원